사회적경제 · 일자리창출 분야 '최고'

익산시,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최우수상 수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에서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복지사업평가 분야에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창출'을 신규 추가하여, 새로운 국정과제로 대두되는 사회적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사회서비스분야 영역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도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 포상(대상 2, 최우수 3, 우수 5)을 진행했다.

심사는 각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심사위원회 심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추진됐다. 사회적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노력(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실적)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력(일자리 정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실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주요 심사가 이뤄졌으며, 익산시는 최우수 지자체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7 복지행정상 합동시상식'에서 익산시는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최종 확정된 서울 성북구, 서울 광진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와 함께 상을 받았다.

익산시는 올해 4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익산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업선도대학, 창조일자리센터 등 중앙정부와 연계사업 추진에 힘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부문 수상 지자체 중 익산시를 제외한 4곳은 오랫동안 국내 사회적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출범 후 짧은 기간 안에 이들 지자체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정헌율 시장의 강한 의지와 행정적 지원체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현철 센터장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출범 이후 '익산시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각 조직들의 협의체를 결집해 연대활동을 통한 지역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9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다.

더욱이 보유자원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유통, 디자인,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모델을 발굴 육성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원활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 것과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행정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새정부 일자리중심 행정체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익산시 주요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익산시 더 좋은 일자리위원회"를 전라북도 최초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뉴딜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자리 질 제고 개선을 위해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내년부터 익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양·질적 노력이 반영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익산시는 고용노동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과 함께 9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익산새로일하기여성센터는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청년, 노인 일자리사업, 사, 취약계층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더욱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건설교통업무 연말평가 '눈에 띄네'

전북도 건설업 활성화 '최우수상'

주택 · 건축 · 도시재생 분야 '우수'

군산시가 2017년 건설교통업무 연말평가에서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선정 및 전북도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갔다.

지난 15일, 군산시는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전북도 주관) 행사에서 건설업 활성화 부문 전북도 최우수 기관표창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로 유지 관리, 주택·건축·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군산시는 228개 시군구 지자체 중 상위 10%에 포함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사회재난 분야 전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올 한해 군산시가 건설교통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눈부셨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의 군산시가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펼쳐온 주요 생산활동의 핵심 기반 시설 SOC사업 확대와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라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도시기반시설이 점차 안정화 단계에 올라 시민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국가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신규 국가 SOC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로 찾기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부서별 협업을 강조하고 각종 개발로 야기되는 시민과의 갈등 요인을 대화와 타협, 협력과 상생으로 풀어 나가고 있으며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잰걸음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미래경쟁력 지닌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나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내년도 예술 · 체육 장학생 선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예체능 분야에서 끼와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예체능 분야 학생들의 역량개발 및 육성을 위해 '2018 예술·체육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2017년에 개최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등에서 상위 3위 이내 성적으로 입상한 중·고등학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군산 외 지역 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예술분야와 체육분야가 동일하게 개인 최저 40만원부터 단체 최대 600만원이며,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중 수여식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www.edugunsan.org) 또는 군산시 인재양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학교장 추천서, 입상 증빙서류 등과 함께 군산시 인재양성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예술·체육분야의 우수학생들이 지역문화예술인과 체육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2019년부터 기능분야 장학생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인구감소대책 포럼 성료

연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김영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제2선거구) 주최로 열린 익산시 인구감소대책 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익산 모현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이춘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병홍 익산시의장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익산시 인구 감소 대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익산시 인구는 1995년 통합 당시 32만9212명이었다가 2000년 33만8978명까지 증가했지만 매년 감소되어 지난 11월에는 30만명이 무너져 시민들이 허탈해 하며 지역경제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날 열린 포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영배 도의원은 "오늘 포럼을 통해 익산시 인구 감소원인을 알 수 있었으며, 열띤 토론을 통해 익산시 인구 증대 주요 대책이 알려졌다"며 "익산시는 인구 정책 실패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떠나지 않는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2개 중소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대한뽁뽁이 · 성원푸드 익산 제3 · 4일반산단에 '둥지'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 15일 오전 시청 홍보관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영농조합법인 대한뽁뽁이 이황석 대표, 성원푸드 이춘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4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한뽁뽁이는 충남 아산시에 본사를 둔 농업용 뽁뽁이 비닐 및 철골하우스 파이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익산 제3산단 2만202㎡ 부지에 40여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술발전이 크게 없었던 기존 농업용 비닐 대신 수막 난방 없이 무가온 온실을 목표로 단열성, 채광성이 우수한 뽁뽁이 에어캡 비닐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은 일반파이프와 동일하면서 절곡강도는 2배, 결합강도는 3배인 특허출원 파이프를 생산한다. 전국 생산거점으로 교통망이 발달된 익산 제3산업단지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성원푸드는 군산에 소재한 육계 부산물 가공 전문업체로서 익산 제4산단 3,300㎡ 부지에 1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호식품인 닭발 및 닭근위 등을 무뼈닭발, 양념근위 등으로 가공?납품하는 업체로 기존 거래처내 입주 생산방식에서 가공물량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익산 제4산업단지로 신설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 부지매입, 건축 및 설비 등의 투자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공장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11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업이 우리시 투자를 결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익산 투자는 성공투자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착공에서 준공, 경영 전반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곁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